

처음 갖는 안식년 기간 동안에 큰 교회들의 성공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는 의무감이 나를 공허하게 합니다. 작심하여 배우기를 포기하고 전국팔도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을 두루 다니며 만났습니다. 수천명 교회에서부터 수십명의 농부 교인들과 함께 살아가며 목회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저마다 아름다웠습니다.

친구 차정규 목사 내외와 함께 서울 가까운 곳에 이런 비포장 두메산골이 있을까 놀라며 충주 깊은 곳에 살며 목회하는 친구 이수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몇 가구 안 되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이 목사와는 거의 20년 만에 보는 기쁨으로 얼싸 안았습니다. 무엇보다 장화 신고 밭에 들어가 이것저것을 알려주는 사모님의 모습이 제단에 옆드린 만큼 거룩해 보였습니다. 비료나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아 "예술농사"라고 명명했다는 친구의 여유로움에는 속 시원한 순수함이 묻어있었습니다.

밭 한쪽에 누렇게 익은 보리가 그냥 버려 둔 채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리에는 독성을 제거하는 성분이 있어 땅의 독성을 제거하여 영양가 있는 흙을 만들기 위해 심었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백 날 성경을 붙들고 있어도 깨달지 못할 심오한 창조 섭리를 친구는 밭을 일구며 그렇게 발견해 내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그렇게 지은 농산물을 도시 교회를 통해 팔아 살며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갓 따다 준 오이에서 가시들을 훑어 내리고 하나씩 씹으며 돌려드립니다. 막 판 오이에 가시가 있다는 생각은 어릴 때 이후 그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얘기며 건강 얘기를 하다가 무공해 건강한 껌잎까지 선물로 받고 나왔습니다.

마석에서 목회하는 친구 소원섭 목사 내외와 합류하여 화천의 심심산골에 자리 잡은 화천 신앙수련원으로 향하였습니다. 친구 차 목사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며 족히 백 여번은 오가며 만들어 놓은 신앙수련원입니다.

자동차 오를 길도 없는 그런 곳에 소담스런 수련원과 기도처를 지어 놓은 친구의 의지에 도 통한 자만의 성실함을 보았습니다. 비록 수 천의 성도가 있는 교회를 목회 하지는 않아도 삶에 지친 심신들을 위해 일구어 놓은 믿음의 성지, 그곳을 통해 깨끗해진 영혼 보기를 바라는 맑은 영을 가진 친구 잘 둔 덕으로 그가 가는 천국도 나도 곁따라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어서 은퇴하고 한국에 나와서 여기 수련원 한 켠에 집짓고 같이 살자"는 차 목사의 우정 담은 얘기는 이 밤까지도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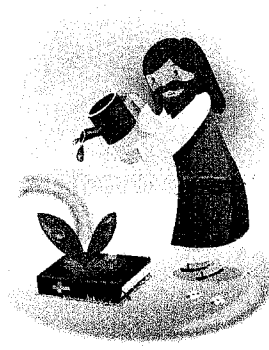
성공이랑게 어디 사람들이 몰려와 부러워해주는 것이던가요? 저렇게 흙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친구처럼, 삶이 고단한 자들에게 하나님 생각하며 다시 힘내라고 산골짜기에 수련원 세워가는 친구의 순정에서 나는 맑아서 빛나는 찬란한 성공을 보았습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자주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사탄에게는 두통거리다

◀인품따라 행하기▶  
 상대방이 곤경에 처했을 때  
 무엇을 해줄까 묻지 말고  
 무엇이 좋을까  
 생각해 보고 실행하라.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9권 28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7월 22일
☎ 369-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잠시만 허락하소서 - 위성임 -



저,  
 이 그늘에서  
 잠시만 쉬어 가게 하소서  
 당신 발자국 따라  
 섬없이 걸었습니다

이제  
 잠시만  
 아주 잠시만  
 쉬어 가게 하소서  
 바람이 건네준 차 한잔에  
 바쁜 하루를 내려 놓고 싶습니다  
 잠시만 쉬어 가게 하소서

당신께서 지어내신  
 주위의 전경도  
 아름다운 새들의 지저귐도  
 옷깃을 스쳐가는 작은 바람도  
 은은한 음률로  
 제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아주 잠시만 허락하소서  
 제 호흡 정돈되거든  
 다시 일어나  
 또다시 당신 뒤를  
 따르려 하나이다

잠시만 허락하소서.

우리 너무 많은 하나님 찾는 소리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작 하나님도 말씀도 빠진 믿음을 붙잡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가끔은 지붕 치는 겨울 빗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두워 잠잠한 집 주변 사위에 취하며, 무심히 잔물결 이는 마당의 고인 물을 보며 차 한 잔 마시는 것. 때론 아무 생각 없는 이런 무심한 자유로움이 천국에서 누릴 평화로운 안식을 그려보게 한다(목사의 辯)

# 주 일 예 배

(\* 표에 있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Hymn	갈보리	다 같 이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27(시편 121)	
찬 송 Hymn	91 장	다 같 이
기 도 Pray		김영길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창세기 49:5-7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인생은 곡선이다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38장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 ◆7월 예배위원◆

### ◆7월의 교회력◆

일자	기 도	응 답 송	안 내
01	고성일		본당:권사
08	김교설		현관(1)박일영 최재학
15	김순자		현관(2)장현중 정덕수
22	김영길		새교우:이광희 이근평
29	김반석		윤주야 장유진

	행 사	예배와 모임
1	맥추감사주일	헌신예배
8		구역예배
15	전교인체육대회	창립기념예배
22	당 회	남녀선교회월례회
29		

『교회 생활』 2007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회 등록』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오후 1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수요 7:00 pm

1. 교우소식  
\*김경수 성도(조은희 집사 남편). 한국에서 치료중입니다.기도부탁드립니다
2. 오늘 예배도 학교측 행사로 체육관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전건축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이런 필요함을 느껴야 더욱 커져가나 봅니다  
\*금주 수요일예배도 체육관에서 드립니다  
\*금주의 새벽기도회도 인근 가까운 교회에서 드리기 바랍니다.
3. 모임 및 회의  
\*4여선교회(40세-49세) 정기 월례회  
<일시> 7월 28일(토) 낮 12:30분 <장소> 신경화 집사 자택  
\*정기당회(예고). 예배 후 <장소> 교회사무실
4. 진혜령 전도사 부임:아동부 지도
5. 8월헌신예배(예고):3여선교회
6. 성경공부반 모집: "Morning Alpha 성경공부" 12주 과정  
\*<대상> 초신자, 어떤 성경공부 과정도 안해 본 교우  
\*<일시> 8월 4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아침 7:30분-8:30분  
\*<장소> 교회사무실 <인도>김성국 목사

◀착한 시인들▶ 우리도 쿠바의 새들처럼  
서정홍

쿠바에는 새들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더라  
쿠바에는 개들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더라  
해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이다.  
....

그런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낡은 집을 보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오래된 자동차 소리를 듣고  
가난하다고 한다 못산다고 한다

이 세상에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않았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  
쿠바는 결코  
가난하거나 불행하지 않더라

혁명, 카스트로, 제 게바라, 경제붕쇄, 가난 등 전투적인 이미지로 떠오르는 쿠바에도 사랑이 있고 삶이 있을 테지요.  
우리는 소유의 유무에 따라 행과 불행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유의 부족함이 많았던 우리 어린 시절에도 꿈이 있었습니 다.  
오늘 내게 적은 것 밖에 손에 쥐고 있는 게 없을지라도 행복까지 반감 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이 우리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뒤뜰에 나가 네잎클로버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요?